

집단사회성놀이가 자폐청소년의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우희순¹, 원성윤^{2*}

¹원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²세명대학교 작업치료학과

The effect of group sociality play in sociality of autistic adolescent

Hee-Soon Woo¹, Sung-Yoon Won^{2*}

¹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Wonkwa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Semyung University

요약 집단사회성놀이는 놀이를 통한 사회성 증진을 목적으로, 그룹활동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목적 있는 활동, 인지, 신체움직임 등 여러 요소들을 잘 조합하여 자유롭게 자아를 표현시키는 치료적 방법이다. 이를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저하된 자폐청소년들에게 적용하여 궁극적으로 자폐청소년들의 대인관계 개선과 사회성을 증진을 유도함으로써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전 소재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사회성에 결함을 가지고 있는 8명의 자폐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일군 전후실험설계를 적용하였다. 집단사회성놀이 프로그램은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 2회씩 7주간(총 14회기), 한 회기 당 60분씩 시행하였고 중재 전후의 사회성을 Wilcoxon 순위검정을 실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화-자폐 아동 행동 발달 평가(E-CLAC)와 사회성숙도 검사의 점수의 총점이 39.88±6.78에서 47.00±4.28, 49.96±28.00에서 61.36±21.75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집단에서의 적응, 지시 따르기, 행동 빈도 증진 등의 하위항목에서 유의한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집단사회성놀이에 포함된 집단 활동 요소와 대상자들의 발달을 고려한 놀이 활동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폐청소년의 사회성 증진 효과에 효과적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Group play for sociality is a therapeutic method involving a mixture of various factors, such as targeted activities, perceptions, and physical mobility required in daily life, through group activities to encourage self-expression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sociality.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verify its effects by applying it to autistic adolescents who lack communicative ability with others and ultimately to improve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ociality. This study applied a single pre- and post-test experiment design to 8 autistic adolescents with lack of sociality who use a daycare center in Daejeon. The group play for sociality program consisted of two sessions a week for 7 weeks from October to December 2013 for a total of 14 sessions. The sociality of the adolescents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was analyzed by the Wilcoxon signed-rank test.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total grades of the E-CLAC and social maturity test showed significant changes from 39.88±6.78 to 47.00±4.28 and 49.96±28.00 to 61.36±21.75, respectively. In detail,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in the sub-items, such as adjustment in group, following guidance, and increasing behavioral frequency. In conclusion, it was shown that the combined effect of the group activities, including group play for sociality and play activiti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developmental stage of the participants, led to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sociality of the autistic adolescents.

Keywords : Autistic Adolescent; E-CLAC; Group Sociality Play; Sociality; Social Maturity Test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Corresponding Author : Sung-Yoon Won(Semyung Univ.)

Tel: +82-43-649-1633 email: sywon@semyung.ac.kr

Received March 31, 2016

Revised (1st April 18, 2016, 2nd April 21, 2016, 3rd May 2, 2016, 4th May 9, 2016,

Accepted June 2, 2016

5th May 11, 2016, 6th May 26, 2016)

Published June 30, 2016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자폐증상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행동, 정서, 인지 그리고 언어 발달의 결함이 있어 사회 관계의 부족,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질적 장애, 강박적 행동, 저항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1]. 주된 어려움으로 사회적 행동의 문제로 비언어적 의사소통 즉, 눈 맞춤이나 응시행동, 몸짓이나 얼굴 표정 등 상호적 상황에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고 서로 간의 공유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등 이해와 수용적인 측면에서도 제한적이다[1].

특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학령기의 자폐 청소년들의 경우 다양한 행동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문제행동에는 낯선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일이 없고, 타인을 의식해서 행동하지 않으며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어렵게 한다[2]. 이와 같은 자폐청소년들의 행동 특성은 또래친구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용 받지 못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적절한 지도 및 돌봄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들 자신을 그룹 안에서 소외시키게 되고, 결국 등교를 거부하게 된다[2]. 또한 이와 같은 부적응 행동들이 지속될 경우 특수학교, 병원 및 시설 등의 제한된 환경으로 배치되는 이유가 된다[3].

이렇듯 자폐로 인한 외부와의 의사소통 능력의 저하는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공동의 관심을 나누야 하는 학령기의 전 과정에서 또래학생들보다 심한 정서적 문제와 행동상의 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4]. 이러한 문제는 가족 이외의 타인과의 접촉을 통한 대인관계 형성이 빈번해지는 청소년기에 있어서 사회적응력 및 상호작용 등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의 부족이 두드러지게 부각되기 시작한다[5]. 그러므로 이러한 청소년기에 한명의 사회인으로써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된다[6].

자폐청소년의 사회성 훈련은 전통적으로 약물치료, 특수교육, 행동수정 등의 방법이 적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아동들이 관심과 흥미를 갖을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한 감각통합, 음악, 미술, 놀이 등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지고 있으며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자폐 증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지고 있다[7]. 사회성은 본질적

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형성되는 개념이므로 교사 및 치료사의 개별적인 중재방법 보다는 또래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중재방법이 더 효과적이며[8], 사회성 증진을 위한 중재 시 필히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또한 대상자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발달요소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흥미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폐 아동들의 특성상 자발적인 접근 및 행동의 결여, 비신체적 놀이에서의 융통성 부족, 눈 맞춤의 결여를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요소들을 보완하는 중재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9]. 이와 같은 문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중재방법으로는 사회성 증진 요소를 집목한 놀이치료가 효과적이다[10].

놀이는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지적 능력이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대상자들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면 되므로 어떤 대상자들에게나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1]. 또한 놀이치료 과정을 통해 타인과 어울릴 수 있게 해주고, 역할과 경쟁심, 협동심과 자신감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사회성 증진에 좋은 요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으로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자폐 대상자들에게 발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놀이를 통해서 참여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용하다고 하겠다[12].

본 연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집단사회성놀이 프로그램은 자폐청소년들의 발달 상태 및 흥미요소를 고려한 놀이와 또래 친구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집단 활동 요소를 집목하여 사회성 증진을 목적으로 구성하였다. 집단놀이치료는 놀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또래친구들의 행동들에 집중하게 되고 서로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게 되며[13], 이를 통해 사회성기술 향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해결하는 방식에 도움을 주게 된다[11].

현재까지 발표된 집단사회성놀이와 유사한 개념의 그룹프로그램들을 적용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상자가 일반아동이거나 학령전기의 아동에 국한되어 진행되었으며, 사회성이 극도로 저하된 자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학령기의 자폐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성 결핍으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행동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이 특히 요구되는 자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활동 요소, 발달을 고려한 놀이 요소, 사회성 증진 요소를 접목한 집단사회성놀이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사회성 증진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자폐 청소년들의 주된 문제점이 사회성 저하와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특징지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집단사회성놀이를 그 어떤 대상자들보다 자폐청소년에게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대전소재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8명의 자폐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자 선정 조건은 첫째, 운동기능에 대한 결함이 없는 자, 둘째, 놀이 규칙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력을 갖고 있는 자, 셋째, 이전에 유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보호자 및 대상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였다.

2.2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3년 10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주2회 60분, 7주 동안 집단사회성 놀이를 실시 및 사전·사후 평가를 시행하였다(그림 1).

대상자들의 사회성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이화-자폐 아동 행동 발달 평가 도구(E-CLAC) 검사와 사회성숙도 검사를 이용하여 사전 및 사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집단사회성놀이 프로그램은 Kirby(1992)[14]의 연구에서 제시된 놀이 프로그램 진행자를 위한 지침 자료, Corey(1995)[15]와 석주영(2004)[16]의 연구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의 전체 구성, O'Connor(1991)[17]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집단 형식의 프로그램 내용을 토대로 변형 및 추가 작업을 거쳐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Table 1). 회기별 프로그램은 도입활동(10분)과 본 활동(40분), 마무리(10분)활동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60분 동안 진행하였다.

도입활동은 매회기 진행되는 놀이 규칙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대상자들의 이해를 돕는 시간이다. 본 활동은 자폐청소년들의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놀이 프

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매회기별 40분 동안 실시한다. 본 활동 실시 시 협동, 공유, 주고받기 등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자폐청소년의 사회성 증진을 위해 팀별로 진행하였다. 마무리활동은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 후 사용했던 물건들을 친구들과 함께 정리하는 시간이며, 이를 통해 자발적인 행동을 촉진시키고 사회적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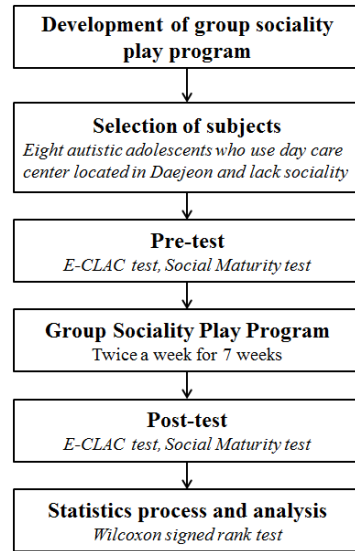


Fig. 1. Research procedure

2.3 검사 도구

2.3.1 이화-자폐 아동 행동 발달 평가도구

(Ewha-Check List for Autistic Children : E-CLAC)

자폐성 발달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우메르 게이사쿠 등이 개발하였고 이화여자대학교 언어·청각임상센터에서 기존의 CLAC-II(Check List for Autistic Children-II)의 문항을 변형 및 추가하여 새로 제작한 이화-자폐 아동 행동 발달 평가도구(E-CLAC)를 사용하였다[18].

이 도구는 발달문항 18문항, 병리문항 25문항이 포함된 척도문항 43문항, 비척도 문항 13문항, 총 5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문항으로는 운동성, 안전관리, 식사, 위생습관, 놀이, 언어, 취급하기 등을 포함한다. 이 도구의 점수 척도는 5점 척도로 1단계는 가장 발달수준이 낮음을 나타내고 5단계는 가장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 본 검사도구의 발달문항은 Cronbach $\alpha=0.93$, 병리문

항 Cronbach $\alpha=.88$ 로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18].

본 연구에서는 이승민(2005)의 연구에 따라 사회성과 관련된 11항목을 채택하여 측정하였으며 채택된 항목은 집단에의 적응 영역의 1개의 하위 항목, 대인관계 영역의 4개의 하위 항목, 지시 따르기 영역의 1개의 하위항목, 행동 영역의 5개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9].

2.3.2 사회성숙도 검사(Social Maturity Scale)

사회성숙도검사는 Doll의 Vineland Social Maturity Scale을 기반으로 하여, 김승국과 김옥기(1995)에 의해 우리나라의 배경과 연령 수준에 맞게 표준화한 한국판 사회성숙도검사를 사용하였다[20]. 이 도구는 자조, 이동, 작업, 의사소통, 자기관리, 사회화의 6가지 항목으로 1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사회연령(SA-social age)을 산출 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회지수(SQ-social quotient)로 환산이 가능하다. 이 검사는 부모나 부모 대리자의 면접을 통해 평가가 가능하며, 수행수준에 따라 “+”, “+F”, “+No”, “±”, “-”로 채점된다. 검사 도구의 Cronbach's α 는 .84로 신뢰할만한 검사도구이다[20].

2.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 집단사회성놀이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의 E-CLAC, 사회성숙도검사 결과를 Wilcoxon순위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한 유의수준을 $\alpha =.05$ 로 하였다. 사회성숙도의 변화량에 따른 E-CLAC의 하위요소들의 변화량에 대한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Spearman의 상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집단사회성놀이프로그램의 적용이 자폐청소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3.1 E-CLAC 검사를 통한 각 영역별 사전·사후 변화 비교

집단사회성놀이 프로그램 전과 후의 사회성 변화를 비교한 결과 E-CLAC 총점은 39.88±6.78에서 47.00±4.28로 크게 향상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Z=-2.52, p=.012$)(Table 2). 하위영역에서 “집단에의 적응”(Z=-1.73, p=.083)과 “지시 따르기 영역”(Z=-1.73, p=.083)은 평균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부모와의 대인관계”항목을 제외한 “형제자매와의 대인관계”, “다른 어른들과의 대인관계”, “다른 아이들과의 대인관계” 항목에서는 평균의 향상 및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Z=-2.38, p=.017$). 행동영역에서는 ”지시에 의한 모방“항목을 제

Table 1. Group Game Play Program

Goal by Phase	Session	Game Activities	Goals of Activities
Self-Exposure and Forming Relationships	1	Introducing Myself	Forming Relationships and Trust, Intimacy, and Self-Exposure
	2	Expressing Myself	
Recognition and Expression of Emotions	3	Making Emotion Table / Emotion Bingo	Recognition of Emotion, Distinguishing Emotions, and Expression of Emotions
	4	Speed Quiz	
Self-Control	5	Halli Galli/Turning over Cards	Control Impulse, Improving Repressive Power, and Enhancing Self-Control
	6	Domino/ Building Tower	
Cognitive Ability	7	Chicken Cha Cha Cha	Enhancing Memory and Attention, Increasing Creativeness, Growing Imagination, and Improving Linguistic Skills
	8	Let's Make Phrases!	
Communication	9	Drawing according to listening	Improving Problem-Solving Ability, Conversation Skills, and Sociality, Figuring out Other's Intentions, and Proper Expressions of Wills
	10	Speak with Body	
Sociality	11	Mission Bingo	Improving Responsive Ability to Situations and Interpersonal Skills
	12	Making Hand Palm Trees	
Cooperation	13	Moving Ping Pong Ball	Improving Self-Control, Increasing Cooperation, and Enhancing Quickness
	14	Please Mimic Me	

Table 2. The Results of E-CLAC before and after Group Game Play Program

Area	Item	Before M±SD	After M±SD	Z	p
Adjustability	Group Adjustability	3.13±1.13	3.50±1.07	-1.73	.083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Parents	4.13±0.99	4.75±0.46	-1.89	.059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Siblings	3.75±1.03	4.38±0.52	-2.24	.025*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Other Adults	3.63±0.52	4.25±0.71	-2.24	.025*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Peers	3.63±0.74	4.50±0.53	-2.33	.020*
	Sub-Total	15.13±2.85	17.88±1.25	-2.38	.017*
Behaviors	Following Instructions	4.00±1.07	4.38±0.92	-1.73	.083
	Volunteering	3.50±1.31	4.38±0.74	-2.07	.038*
	Attention	3.25±0.71	3.88±0.64	-2.24	.025*
	Voluntary Mimic	4.00±0.93	4.75±0.46	-2.12	.034*
	Mimic by Instructions	4.13±1.13	4.50±0.76	-1.73	.083
	Planability	2.75±1.03	3.75±0.89	-2.27	.023*
	Sub-Total	17.63±3.78	21.25±1.91	-2.55	.011*
Total		39.88±6.78	47.00±4.28	-2.52	.012*

*p< .05

위한 ”자발성“, ”집중성“, ”자발적 모방“, ”계획성“ 항목에서 평균의 향상 및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Z=-2.55, p=.011)

3.2 사회성숙도검사를 통한 사전사후 변화 비교

집단사회성놀이 프로그램의 전과 후에 자폐청소년의 사회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성숙도 검사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사회연령(SA, Z=-2.02, p=.043)은 9.13±5.59에서 11.01±4.35로 크게 변화되었고, 사회지수(SQ, Z=-2.02, p=.043)는 49.96±28.00에서 61.36±21.7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

Table 3. The Comparison of The Results of Social Maturity Test before and after Group Game Play Program

Item	Before	After	Z	p
	M±SD	M±SD		
SA	9.13±5.59	11.01±4.35	-2.02	.043*
SQ	49.96±28.00	61.36±21.75	-2.02	.043*

*p< .05, SA: Social age , SQ: Social quotient

3.3 사회성숙도변화량에 따른 E-CLAC 하위 요소들과의 상관관계

집단사회성놀이 프로그램 전과 후의 사회성숙도 변화량과 E-CLAC 평가도구의 하위 요소들의 변화량과의 상관분석 결과 계획성(planability) 항목에서 높은 수준의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r=.95, p<.05). 그 밖에 주의집중(r=.64), 부모와의 상호관계(r=.51), 자발적 모방(r=.56) 항목에서도 중간 정도의 유의성을 보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관찰되지 않았다(p>.05)(Table 4).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change amount of the social maturity and the subitem of E-CLAC

	correlation coefficient
Group Adjustability	.146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Parents	.510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Siblings	.364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Other Adults	.073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Peers	.40
Following Instructions	.073
Volunteering	.334
Attention	.638
Voluntary Mimic	.564
Mimic by Instructions	.073
Planability	.953*

*p< .05

4. 논의

본 연구는 집단사회성놀이 프로그램을 자폐청소년에게 적용하여 사회성 변화에 대한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실시되었다. 집단사회성 놀이 프로그램은 이전 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변형 및 추가 작업을 거쳐 7가지 단계적 목표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사회성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사회성숙도 검사와 E-CLAC검

사를 사전·사후 평가로 적용하였다.

집단사회성놀이가 프로그램을 통한 자폐청소년의 사회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성숙도검사의 사회연령(SA)이 9.13 ± 5.59 에서 11.01 ± 4.35 로 크게 변화되었고, 사회지수(SQ) 역시 49.96 ± 28.00 에서 61.36 ± 21.7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이는 7주간의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약 2개년 수준의 사회성이 향상된 것으로 집단활동을 통해 또래와의 상호작용 강화가 자폐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프로그램을 통한 또래와의 활발한 정서적 교류가 단시간에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는 기회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집단 프로그램이 단시간에 사회성을 증진시킨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21, 22]. 대상자들의 발달수준을 고려한 본 사회성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들이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CLAC 검사를 통한 사회성 변화 추적에서도 총점이 39.88 ± 6.78 에서 47.00 ± 4.28 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변화였음을 확인하였다($p < .05$)(Table 2). E-CLAC 검사도구의 하위항목 중 집단에의 적응, 대인관계, 지시 따르기, 행동 항목 등에서 유의성 높은 변화가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집단사회성놀이가 프로그램 전·후 그룹 적응 능력이 3.13 ± 1.13 에서 3.50 ± 1.07 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는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서로 간의 감정이 공유되지 않아 이해와 수용적 측면에 제한이 있는 자폐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후 대상자들이 집단에의 적응 영역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음을 보여 준다. 집단놀이활동은 또래친구들과의 신체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감각적인 경험을 획득할 수 있다[10]. 이는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자폐청소년들에게 자기 이외의 대상을 인식하게 되는 강력한 경험이 될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타인과의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발달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 놀이 활동이 사회성 결핍이 있는 자폐성 장애아의 적응행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9].

둘째 집단사회성놀이가 프로그램 전·후 대인관계 능력이 15.13 ± 2.85 에서 17.88 ± 1.25 로 평균의 긍정적인 향상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Z = -2.38, p < .05$). 자폐성 아동의 사회적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또래와의 관계 및 활동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타협하는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23]. 또한 집단 내에서의 협동과제는 자신 및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등을 경험할 수 있어 자기조절, 자기인식, 감정이입, 대인관계 기술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12].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집단활동을 통해 또래와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에게 집단 내에서 자신의 감정 및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과 서로의 관계 다루기에 대한 경험이 자기인식 및 대인관계기술 등과 같은 사회적 기술이 향상으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집단사회성놀이가 프로그램 전·후 지시 따르기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점수의 평균은 4.00 ± 1.07 에서 4.38 ± 0.92 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p > .05$). 자폐증 특성상 주변 상황에 무관심함을 보이고 지시 따르기에 많은 어려움을 특징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평균의 향상은 집단사회성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신체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의 참여가 자연스러운 지시 따르기 및 주변상황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게 되어 집단의식을 고취 시킨 결과와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다[24].

마지막으로 E-CLAC의 행동 영역을 살펴보면, 집단사회성놀이가 프로그램 전·후 행동 영역(자발성, 집중성, 자발적 모방, 계획성)이 39.88 ± 6.78 에서 47.00 ± 4.28 로 평균의 긍정적인 향상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Z = -2.52, p < .05$). 자폐증상을 갖고 있는 대상자들의 집단활동의 참여는 대상자들의 고집 행동, 자신의 신체를 때리거나 무는 등의 자해 행동, 피성을 지르는 행동, 자리에서 이탈하는 행동 등의 부적절한 행동의 감소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다[12]. 대상자들이 흥미를 갖을 수 있는 놀이활동 요소와 또래 친구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집단활동 요소가 작용하여 행동영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성숙도 및 E-CLAC 하위요소들의 프로그램 전후 변화량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계획성 항목에서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이는 사회성이 높은 아이들이 본 집단사회성 놀이에서 높은 수준의 계획성을 보였다는 것으로, 이는 개인 놀이와

달리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필요한 집단 놀이에서 순서 및 규칙 등의 적용이 보다 엄격할 수밖에 없으므로[12], 그 활동 안에 자연스럽게 자폐청소년들이 계획성을 녹여 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계획성 항목 이외의 유의성은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E-CLAC 평가도구가 하위요소들의 평가 문항이 5단계로 측정되기 때문에 수치의 변화량이 크지 않은 이유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자들의 전체변화량의 차이는 보였지만, 하위요소들의 점수 변화에 일관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E-CLAC 하위 항목에서 집단에의 적응, 대인관계, 행동영역에서 점수가 증가된 아동은 지시 따르기 영역의 향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대인관계 및 행동영역에 점수 향상을 보인 대상자는 집단에의 적응 및 지시 따르기 영역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폐청소년들 모두 개개인의 특성 및 발달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자폐청소년들의 사회성 증진에 영향을 준 본 연구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또래친구들과 관계 및 활동을 유도한 그룹 프로그램 요소와 대상자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놀이 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7주라는 단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시킬 수 있었다. 자폐청소년의 사회성 증진에 개별치료도 또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대상자들의 사회적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또래와의 관계 및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언급한 연구자들처럼 그룹치료가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12]. 또한 자폐증상을 갖고 있는 대상자들의 사회성 치료 시 그들이 관심 갖고 있는 발달연령상의 놀이를 통하여 또래 친구들과의 집단활동을 유도할 경우 대인관계 기술 및 자기인식 등과 같은 사회성 기술 향상에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적은 대상자의 수로 인하여 다양한 유형의 자폐 특성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또한 개개인별 놀이 선호도 및 놀이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한 점 역시 본 연구의 큰 제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추후 연구를 통해 많은 대상자들이 참여한 그룹사회성 놀이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그 효과에 대해 다시 한 번 검증한다면 자폐청소년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긍정적 이론적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사회성의 저하를 보이는 자폐청소년들에게 집단사회성놀이를 적용한 후에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집단치료의 영역을 확대하고 자폐청소년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치료적 중재 개발의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집단사회성놀이에 포함된 집단활동 요소와 대상자들의 발달을 고려한 놀이활동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폐청소년의 사회성 증진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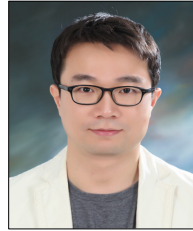
- [1] G. Dawson, J. Munson, A. Estes, J. Osterling, J. McPartland, K. Toth, L. Carver, R. Abbott, "Neurocognitive Function and Joint Attention Ability in Young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Versus Developmental Delay", *Child Development*, Vol. 73, No. 2, pp. 345-358, 2002.
DOI: <http://dx.doi.org/10.1111/1467-8624.00411>
- [2] J. H. Lim, B. J. Lee, J. H. Shin, "The Effects of Art Therapy on Self Expression of Adolescents with Autistic Disorder",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Vol. 54, No. 4, pp. 339-356, 2015.
DOI: <http://dx.doi.org/10.15870/jsers.2015.12.54.4.339>
- [3] D. Y. Kim, E. H. Paik, "The Effects of Individualized Positive Behavior Support on The Aggressive Behavior and on-Task Behavior of a High School Student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50, No. 4, pp. 177-197, 2016.
- [4] J. M. Bass, J. A. Mulick, "Social play skill enhancement of Children with Autism using peers and siblings as Therapists", *Psychology in the Schools*, Vol. 44, No. 7, pp. 727-735, 2007.
DOI: <http://dx.doi.org/10.1002/pits.20261>
- [5] D. H. Kim, H. M. Mun, "Qualitative Study on Conversational Behaviors in Adolescents with High-Functioning Autism", *Korea Society for the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Vol. 25, No. 4, pp. 205-231, 2009.
- [6] Y. S. Lee, "A Social Improvement of Autistic teenagers throughout Group Art Therapy", Kyunghee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3.
- [7] H. J. Park, "The effects of Physical Activity Program on the Social Adjustment of Autistic", *Journal of Physical Growth and Motor Development*, Vol. 13, No. 2, pp. 53-61, 2005.
- [8] S. Y. Park, "The Effect of Small Group Art Therapy Program with Non-handicapped Peers on the Social Skills in Autistic Child",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 14, No. 1, pp. 17-42,

2007.

- [9] E. J. Lee, "The Effect of Activities with Group Play on Adaptive Behaviors of Young Autistic Children", Dankoo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3.
- [10] S. M. Shin, M. K. Shim, "The effects of Theraplay on Social behavior of Young children with Autism", *The Journal of Play Therapy*, Vol. 14, No. 3, pp. 93-107, 2010.
- [11] S. Y. Kim, M. J. Kim, H. L. Ro, "Effects of a Group Play Therapy of Social Skills i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Vol. 2, No. 1, pp. 47-57, 2014.
DOI: <http://dx.doi.org/10.15205/kschs.2014.2.1.47>
- [12] Y. A. Oh, J. S. Lee, "The effects of Group Theraplay on Social Interaction Behaviors of Children with Autism",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Autism*, Vol. 7, No. 1, pp. 37-62, 2007.
- [13] K. H. Choi, "A Case Study through the structured Group Therapy using reading Activities : focused on the Self-esteem of the Children of divorced. Daegu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1.
- [14] A. Kirby, "Games for trainers". vol. 1-2, London, Gower, 1992.
- [15] G. Corey,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counseling", 4th ed, Brooks and Cole Publishing company, 1995.
- [16] J. Y. Suk, O. H. An, I. J. Park, "The Effects of the Group Game Play Therapy on the Improvem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The Korea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Vol. 15, No. 2, pp. 703-718, 2006.
- [17] K. O'Connor. "The Play the Therapy Primer", pp. 59-106, Wiley Publishers, 2001.
- [18] T. R. Kim, R. G. Park, J. S. Byun, W. S. Kang, "A Study of Development of Behavior Assessment for Autistic Children", *Special Children Clinical Research*, Vol. 2, pp. 21-69, 1991.
- [19] S. M. Lee, S. K. Choi, "The effects of paired-physical activities on the social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Physical Education*, Vol. 3, pp. 47-55, 2005.
- [20] S. K. Kim, O. K. Kim, "Social Maturity Scale", pp. 1-155, Central Aptitude Publisher, 1995.
- [21] Y. H. Suk, "The Effects of Group Games on the Social Skills of Young Autistic Children", Dankoo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6.
- [22] J. W. Ku, "The Effects of the Group Game Play Therapy Using Parents Child Interaction on the Social Skill of Low Income Group Children", *Korea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Therapy*, Vol. 1, No. 2, pp. 109-128, 2009.
- [23] E. J. Yang, D. Y. Kim, "The effect of cooperative art therapy on peer relation of autistic children",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 12, No. 1, pp. 85-111, 2005.
- [24] J. E. Lee, "Effects of Applied Physical Activities Program on Compliance to Direction in Children with Autism", Daegu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5.

우 희 순(Hee-Soon Woo)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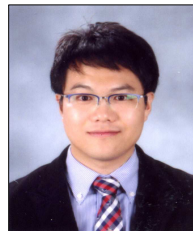
- 2013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작업치료학과(작업치료학 박사)
- 2009년 3월 ~ 2015년 2월 : 우송
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조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원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연하재활, 신경계작업치료

원 성 윤(Sung-Yoon Won)

[정회원]



- 2011년 8월 : 연세대학교 응용생
명과학과 (해부학박사)
- 2013년 3월 ~ 2015년 2월 : 우송
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초빙교원
- 2015년 3월 ~ 현재 : 세명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작업치료, 해부학